

“音樂”에 대한 論談

張翼善(延邊大學藝術學院)

| | | |
|---------------|-----|-------------|
| 序論: | 차례 | 3. 文獻에서의 音樂 |
| 本論: | | 4. 音樂의 功能 |
| 1. 音樂의 本體的 側面 | 結論: | |
| 2. 先人들의 音樂觀 | | |

序論:

음악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히 알고 있다. 즉 어려서부터 음악을 접착하고, 음악 속에서 성장하고, 음악과 한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음악은 특수한 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음악과 함께 즐기거나 음악과 함께 여가를 보낸다. 그러는 가운데서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즐긴다. 때문에 고대로부터 많은 제왕과 성인들은 “여민동락(與民同樂)”에 대하여 중시하여왔다. 이런 도리(道理)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음악에 대하여서 고대(古代)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인(聖人)들과 전문가들은 고민(苦悶)하고, 연구(研究)하고, 탐구(探究)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답안을 찾아 가고 있다.

이런 연구 속에서 음악에 대한 설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음악가들은 음악의 본체(本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음악의 구조적(構造的), 음악적(音樂的), 또는 지역적(地域的), 민족적(民族的) 특성도 살펴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있다. 그리고 철학가들과 미학가들, 그리고 많은 성인(聖人)들은 음악의 심층(深層)에 대하여 탐구하고, 터득하고, 그 오묘(奧妙)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나름대로 종합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여 본문에서는 음악의 본체(本體)적인 측면과 내재적(內在的)인 측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本論:

1. 音樂의 本體的 側面

음악을 표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리적(物理的) 현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음악(音樂)은 음과 음의 연결(連結), 혹은 중첩(重疊), 음의 높고 낮은 것(高低), 음들의 밀집과 느슨한 것(疎緊), 강한 것과 약한 것(強弱), 진한 것과 연한 것(深淺), 밝은 것과 암담한 것(亮暗), 강인한 것과 연약한 것(硬軟), 격렬한 것과 온화한 것(激穩), 연결되는 것과 끊어지는 것(連斷), 솟구치는 것과 잔잔한 것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표층적인 측면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인 음이다.

1) 音

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정의(定義)를 내 놓았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귀납(歸納)할 수 있다. 첫째로, 음은 우리말로 소리라고 한다. 이는 물체의 진동(振動)에 의해서 산생되고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어 인간 혹은 동물들의 청각을 자극한다. 하여 음악은 청각예술이라고 한다. 둘째로, 동물들은 소리로 자신의 의사(意思)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意思) 소통은 쌍방이 일정한 공통점(共通點)과 공감대(共感帶)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일정한 차이 혹은 또 역(逆)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셋째로, 소리의 높이나 세기, 길이 따위를 조화시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부동한 질과 부동한 재질에 의해 서로 다른 느낌과 감응(感應)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음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複合的)인 인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음을 형성하는 규칙적인 진동, 그의 높낮이의 변화 등이 결정적인 인소이다. 넷째로, 진동의 규칙성(規則性)에 의하여 인식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진동하는 물체의 일정한 진동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平穩)한 감각과 몸 자체의 공진(共振)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진은 주변에 있는 물체들에게도 상응한 파장(波長)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섯째로, 때로는 불규칙적인 진폭 혹은 진동도 사람들의 청각을 자극하여 또 다른 느낌과 자극을 준다. 그런 점들은 타악기 등에서 많이 보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진동들은 자극성적인 일면이 있기에 장시간 혹은 오랫동안 들으면 피곤한 느낌이 든다.

이상과 같이 음에 대해 간추려 살펴보았다. 이러한 음들은 음악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要素)들이고, 음악을 만드는데서 기초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또한 음악을 탐구(探究)하고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樂

악(樂)이라고 하는 글은 한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로, 낙(樂-lè)이라고 한다. 즉 기쁘다는 뜻이다. 하여 이 글과 다른 글을 조합하면 쾌락(快~), 기쁜 일(~事), 낙관(~觀) 등이 있다. 이러한 단어 조합으로부터 보면 기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좋아한다(喜歡)는 의미이다. 흥쾌이(~意), 좋아서 피곤도 마다하다(~此不疲), 흥미진진하게(津津~道), 보고 듣는 면에서 모두 좋아하다(喜聞~見)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자신의 뜻과 의미에 부합되기 때문에 혹은 즐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얼마만큼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측면과 즐긴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 원의(願意)이다. 셋째로, 웃음을 자아내는 면에서 볼 때 우습다(可~).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웃음을 자아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넷째로 악(樂-yuè)이다. 이는 사람들이 음악을 가리키면서 하는 면이 많다. 즉 악기(~器). 음악을 연주하는 것 주악(奏~) 등이다. 이러한 때에는 악으로 많이 나타나고 음악과 관계되는 단어들과 많이 조합된다. 다섯째로 樂(yào)라고 한다. 이는 많이 쓰는 의미가 아니다. 성인(聖人)인 공자(孔子)가 《논어(論語)》〈옹아편(雍也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자낙수이고 인자 낙산이라(智者~水, 仁者~山).” 그리고 또한 “지자동이요, 인자정이라. 지자낙이요, 인자수라(智者動, 仁者靜; 智者樂, 仁者壽)”¹⁾이다. 그 외에 사람의 성(姓)씨로도 악(樂)²⁾자를 쓰는데 이는 비교적 희소한 성(姓)씨이다.

1) 공자의 《논어(論語)》옹아편(雍也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자(智者)도 역시 총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총명한 사람은 일을 처리하면 있어서 반응이 민첩하고 상상이 매우 활발하기에 그 성품이 마치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도 같다가에 물에 비유하였다. 인자(仁者)도 역시 인품이 두터운 사람을 말한다. 인자한 사람은 이치에 맞게 모든 일을 처사하고 인자하고 넓기에 쉽게 충동하지 않고 성격도 마치 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온당하기에 산에 비유한다. 만일 일반적인 사람에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산수를 모두 낙(樂-좋아한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악(樂)의 자의(字意)로부터 볼 때 참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가지고 조합(組合)하기 좋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악(樂)은 좋고, 기쁘고, 즐거움에 많이 사용되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악(樂)자는 음자와 결합해서 또 다른 함의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은 음악의 본체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러한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音樂

음악은 많은 사람들이 공인 하듯이 박자(拍子), 가락, 음성(音聲), 화성(和聲)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조화시키고,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산생되는 예술이다. 이를 표현 할 때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물체(物體) 즉 악기(樂器)를 통하여 음악이 생산(生産)된다. 이러한 음악은 또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音樂)을 구성하는 기본요소(基本要素)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음악의 고저(音的高低), 음악의 장단(音的長短), 음악의 강약(音的長短), 음악의 색깔(音色) 등이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쉽게 말해 “형식적인 요소(形式要素)”라고 한다. 그러한 형식적인 요소들은 음악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列舉)한다. 즉 절주(節奏), 곡조(曲調), 화성(和聲), 그리고 역도(力度), 속도(速度), 조식(調式), 곡식(曲式), 음의 짜임새(織體), 음색(音色) 등으로 나눈다. 이러한 음악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요소들이 바로 음악을 표현하는 수법이다. 그 중에서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는 절주(節奏)와 선율(旋律)등이 있다.

2) 악의(樂綴)는 고대 전국시기(戰國時期)의 저명인물이다. 그는 중산령수인(中山灵壽人-今河北灵壽)으로 전국후기의 검출(傑出)한 군사가이다. 그는 연(燕)나라의 상장군으로 어명(御命)을 받들고 연소왕(燕昭王)을 보좌하여 연국(燕?)을 진흥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고, 연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① 절주(節奏): 음악에서의 절주는 서로 다른 음고(音高)로 형성된 음들이 길고 짧음과 강약을 기초로 하여 음악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일명 장단이라고도 한다. 음악의 절주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골격에 비유한다. 박자는 음악 중에서 강박과 약박이 주기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중복(重複)되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음악이라고 해도 절주의 변화에 따라 그 정서적인 표현이 다르고 그 느낌도 다르다. 때문에 조선족 음악에서는 같은 중모리라고 해도 낮은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 중모리와 같이 나뉜다. 또한 절주 속에는 강약과 음악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② 곡조(曲調): 곡조는 음악에서의 선율을 가리킨다. 음의 높고 낮음과 기복(起伏)은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음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횡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곡조는 하나의 완전한 음악형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중의 하나이다. 곡조의 진행방향은 변화다양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은 3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즉 “수평진행(水平進行)”, “상행진해(上行)”과 “하행진행(下行)”이다. 같은 음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될 때 이를 “수평진행(水平進行)”이라고 하고, 다음 음이 앞에 음보다 높게 진행될 때에는 “상행진해(上行)”이라고 하며, 다음 음이 앞에 음보다 낮게 진행될 때에는 “하행진행(下行)”이라고 한다. 곡조(曲調)의 진행방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다. “동음반복(同音反復)”, “급진(級進)”과 “조약(跳進)”이다. “동음반복(同音反復)”은 같은 음이 반복하여 출현 할 때 이를 “동음반복”이라고 한다. “급진(級進)”은 음과 음이 인근한 음으로 진행 할 때 “급진(級進)”이라고 한다. “조약(跳進)”은 3도 이내의 음과 음이 진행할 때 이를 작은 조약(小跳)이라고 하고, 4도 혹은 4도 이상의 음으로 음이 진행할 때에는 큰 조약(大跳)이라고 한다. 이러한 음과 음의 다양한 진행은 음악을 형성하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고 음악의 조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소이다. 음악에서 선율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즉 모든 멜로디는 선율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한다. 이러한 선율들은 서로 다른 곡들의 차이점과 개성들을 반영한다.

③ 화성(和聲) : 화성은 “화현”과 “화성진행(和聲進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화성을 쉽게 이야기하면 3개 혹은 3개 이상의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3개 혹은 3개 이상의 음들이 동시에 울리면서 연결되며 중첩적으로 음향조합을 이루는 것을 또한 화성진행이라고 한다. 화성에는 색채적인 면에서 농후한 것, 담백한 것, 두터운 것 및 얇은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아울러 그러한 화성들의 색채로부터 악구(分句), 악단(樂段) 및 악곡의 종지(終止)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서양음악을 도입하면서부터 생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민족의 민간음악과 전통음악에는 이러한 색채는 있지만 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④ 역도(力度) : 음악을 연주하며 있어서 크게 또는 약하게 연주하는 것을 말하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振幅)을 말하는 것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도중에 음악 작품의 수요에 의해 때로는 크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점차 약하게, 때로는 점차 강하게 연주를 한다. 이러한 점은 인간의 단일성을 실어하는 심리적 자극 즉 정서적인 충동을 주는 수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자연의 풍운조화와도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로 쉽다고 본다.

⑤ 속도(速度) : 속도는 음악이 진행과정에서 박자의 빠르고 늦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단위 시간 내에 4분음부 혹은 8분음부와 같은 박자부호를 몇 개씩 연주하는가 하는 진행을 말한다. 또한 이는 절주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속도는 절주의 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⑥ 조식(調式) : 음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음들의 관계가 있고 이러한 음들이 모두가 하나의 중심 음—즉 주음(主音)을 중심으로 해하여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것을 조식이라고 한다. 이런 조식을 서양에서는 장조식(大調式)³⁾, 단조식(小調式)⁴⁾이라고 한다. 장조식과 단조식은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고 조선민족의 전통음악에서는 5성 음계를 많

이 사용한다. 조식 중에서 각 음들은 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일정한 높이로 배열 하였을 때 이것을 곧 음계라고 한다.

⑦ 곡식(曲式)은 음악의 횡적인 조직결구를 말한다. 즉 곡식(Form, musical)은 악곡의 결구형식을 말하는 데 악곡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의 단락들을 가리키고, 이런 단락들은 모두 일정한 규율성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으며, 공통성적인 격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곡식이라고 한다. 악단(樂段)의 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악구 혹은 4개의 악구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2개의 악구는 4개 혹은 8개의 소절로 구성된다. 이러한 것을 일명 “방정성(方整性)” 혹은 “정방형(正方形) 악단이라고 한다. 이러한 곡식결구는 대중가요와 간단한 기악곡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⑧ 짜임새(織體)⁵⁾는 선율을 구성하는 음과 음들의 구성형태를 말한다. 즉 여러 성부의 작품 중에서 각 성부의 조직형태를 말하는데 그 중에는

3) 장조식(大調式)은 서양의 전통조식의 일종으로 3가지 종류가 있다.

(1) 자연장조식(自然大調式)은 즉 1 2 3 4 5 6 7 1의 음정결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들 간의 관계는 장2도, 장2도, 단2도, 장2도, 장2도, 장2도, 단2도로 구성되었다.

(2) 화성장조식(和聲大調式)은 결구에서 자연장조식의 기초에서 제6음을 반음 내리우는 것이다. 즉 1 2 3 4 5 6b 7 1이다. 이러한 음들 간의 관계는 장2도, 장2도, 단2도, 장2도, 단2도, 중2도, 단2도로 구성되었다.

(3) 선율장조식(旋律大調式)은 상행 시 자연장조와 같고 하행 할 때 1 7b 6b 5 4 3 2 1의 형식이다. 때문에 상행 시에는 자연장조와 음들 간의 관계가 같으나 하행 할 때 장2도, 장2도, 단2도, 장2도, 단2도, 장2도로 구성되었다.

4) 단조식(小調式)도 서양의 전통조식 중의 일종으로 3가지 종류가 있다.

(1) 자연단조식(自然小調式)은 6 7 1 2 3 4 5 6의 음정결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들 간의 관계는 장2도, 단2도, 장2도, 장2도, 단2도, 장2도, 장2도로 구성되었다.

(2) 화성단조식(和聲小調式)은 자연단조식의 기초에서 제7음을 반음 올린 형태이다. 즉 6 7 1 2 3 4 5# 6의 음정결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들 간의 관계는 장2도, 단2도, 장2도, 장2도, 단2도, 중2도, 단2도로 구성되었다.

(3) 선율단조식(旋律小調式)은 자연단조식의 기초에서 상행할 때 제6급과 7급을 반음 올리고 하행시에는 자연단조식과 같다. 즉 6 7 1 2 3 4# 5# 6의 음정결구를 가지고 있다.

5) 짜임새(織體)는 악곡에서 성부를 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짜임새의 형태로부터 볼 때 음악은 단성부 형태(單聲形態: 예를 들면 반주가 없는 독창 혹은 제창(齊唱) 등을 가리킨다.)와 다성부 형태(예를 들면 중창(重唱), 합창(合唱), 피나노독주(鋼琴獨奏), 실내악(室內樂), 교향곡(交響曲) 등을 가리킨다.) 등 2개 부분으로 나눈다. 다성부 형태의 음악은 또 주조음악(主調音樂)과 복성음악(複聲音樂)의 2가지 큰 유형으로 나눈다. 전형(典型)적인 주조음악짜임새는 하나의 주선율로(主旋律)화성을 받쳐주는 성부구성을 말한다. 화성이 받쳐주는 성부의 조합형식은 다양하다. 즉 기동식 화현(柱式和弦), 분해식 화현(分解式和弦), 반분해식 화현(半分解式和弦) 등이 있다.

종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횡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반주에서의 형태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짜임새는 단위 박자내의 음들의 출현빈도도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고음과 저음 등의 진행형태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⑨ 음색(音色)은 크게 사람소리와 악기의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사람소리에서는 또한 동성(童聲), 여성(女性), 남성(男性)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악기는 더욱 다종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이는 성악 혹은 악기들의 소리 색깔, 음악을 구성하며 있어서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며 때로는 두 가지 혹은 더 이상의 색깔을 혼합(混合)하여 더 새로운 느낌을 준다. 같은 종류의 사람소리 혹은 악기라고 하여도 음이 변하면 또 일정한 차이를 준다.

이상으로 음의 자의(字意), 악의 자의(字意) 그리고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음악은 그 기본으로부터 볼 때 소리의 구성이다. 이러한 소리의 높낮음(高低), 강약(強弱), 명암(明暗), 기복(起伏)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기뻐하게하고 때로는 슬퍼하게하고 때로는 심사숙고하게 하고 때로는 격동되게 한다. 이는 단순한 기본적인 것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로, “악”의 자의(字意)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이는 악도 되고 낙도 되니 이러한 음악을 감상하다보면 즐거움과 기쁨도 가져올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악은 단순한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차원에도 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두 글자 즉 “음”과 “악”으로부터 볼 때 별것 같지 않지만 그러한 음악으로 하여 사람들은 맥박(脈搏), 율동(律動) 및 정감(感情)에서 매우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즉 음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感情을 유발(抒發)시키고,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로부터 감정을 기탁(寄托)할 수 있는 예술로 승화시킨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음악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과 기분적인, 차원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높은 신성(神聖的)한 의념적인 차원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先人들의 音樂觀

음악과 그의 함의에 대해서는 많은 선인들과 성인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선인들은 음악을 단순한 노래와 춤을 위한 곡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인 면과 인간의 정신세계, 그리고 국정 및 천지간의 천리로도 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음악의 본체도 좋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의념적인 견해들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孔子⁶⁾의 “樂而不淫, 哀而不傷”

공자(孔子)의 사상 의념은 보통사람들의 생각과도 달리 참으로 성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그는 문學家(文學家)이고, 사상가(思想家), 교육가(教育家), 정치가(政治家), 사회 활동가(社會活動家), 고문헌정리가(古文獻整理家), 유가 학파(儒家學派)편찬자라고 하였다가 후에는 그를 유가(儒家)학과(學派)의 창시인(創始人)이라고 하였다. 세계 연합국에서는 그를 “세계 10대문화명인(世界十大文化名人)”의 거두라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수식어들은 모두가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지칭해준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그가 평생 많은 책을 읽었고 또 썼으며 많은 후학들을 거느리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6) 공자(孔子) 기원전 551년 9월 28일(음력 8월 27일)~기원전 479년 4월 11일(음력 2월 11일) 성(姓)은 공씨(孔氏)이고, 이름은 구(丘)이며, 자(字)는 중니(仲尼)이고, 동주(東周)시기 로(魯)남 추읍(陬邑)(오늘 날 중국산둥성 곡부시 남진진-今中國山東省曲阜市南辛鎮)의 사람으로 조상들은 송(宋)나라(오늘 날 하남성 상구-河南商丘)의 귀족이다. 중국춘추말기의 사상이고, 교육가이며 유가 사상의 창시인(創始人)이다. 공자는 고대 문화의 대성이고 세계적인 영예를 지닌 “천종지골(天縱之聖)”, “천지목탁(天之木鐸)”사람이고, 당시 사회의 가장 박식한 학자중의 한사람이다. 하여 후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공성인(孔聖人), 지골(至聖), 지골선사(至聖先師), 만세사표(萬世師表)라고 지칭한다. 공자와 유교사상은 중국과 조선반도(朝鮮半島), 일본(日本)과 베트남(越南) 등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지역들은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하게 하였다. 그의 일생은 전도(傳道), 수업(授業), 해혹(解惑)에 종사하였고 중국 사람들로부터 그는 “지골선사(至聖先師), 만세사표(萬世師表)”라고 존경을 받았다. 공자의 제자 및 그 후대들은 공자의 언행을 어록(語錄)으로 하고 그의 사상을 기록하여 전했다.

유가의 학설을 정리하기 위하여 많은 고서적들을 읽었고 거기에 유관된 저서들을 썼다. 이러한 과정에 그는 그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고 아울러 자기의 학파를 창시하였고 후세에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였다.

이렇게 많은 주장가운데 그는 “아악(雅樂)”을 주장하고 “정성(鄭聲)”을 반대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아악(雅樂)”은 참으로 만민이 좋아하는 음악이고 그가 반대하는 “정성(鄭聲)”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음악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아악(雅樂)”만이 인간들에게 진정한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정성(鄭聲)”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견해를 이야기 하였기에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어떤 남다른 생각이 든다.

일부 연구자들이 “정성(鄭聲)”은 실제상에서 그 당시의 “신악(新樂)”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악(新樂)”은 절주가 명확하고 강렬하며 곡조가 높고 낮음의 정서가 매우 커서 사람들로 하여 쉽게 격동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볼 때 모종 의미(依微)에서는 전통과 새로운 음악과의 어떠한 심미적인 추구(追求)와 지향적(指向的)인 견해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념(疑念)적인 차이 및 다양한 이념적(理念的)인 차이도 있다고 본다.

많은 정치가, 예술가 및 철학자들의 주장(主張)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아악(雅樂)”이든 “정성(鄭聲)”이든 그것을 보는 시각과 입각점(立脚点)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그 속에 어떠한 함의를 부여 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로부터 산생되는 음악에 대한 지주(支柱)적인 집념(執念)이라고 본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의 이익(利益)과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본다. 즉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공자는 “악(樂)”에 대해서 “악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이라고 하였다. 이는 기쁨과 상심은 대할 때 모두 자제(自制)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중심을 지키고 자기를 억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기에 공자의 주장 속에는 “극기불례(克己不禮)”와 “중용(中庸)”을 제창하고 모든 문제에서 본아적(本我的)인 것을 자제(自制)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자제는 일정한 측면에서는 확실히 필요하지만 동물적인 측면과 인간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초아(超我)적임을 부르짖고 예술에서의 개성과 창조가 억제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면도 있다.

(2) 孟子의 “與民同樂”

맹자(孟子)의 악무미학사상(樂舞美學思想)은 사회(社會), 정치(政治), 윤리(倫理) 및 철학(哲學) 등 다방면에 반영되었다. 그의 사상은 그 당시 사회적인 정치, 윤리 활동 및 악무(樂舞)발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매우 밀접한 연계를 가졌다. 이는 총체적인 사회의 한 개 구성부분으로 되었다. 허나 맹가(孟軻)는 지배계급의 입장에 서서 통치자들에게 악무(樂舞)의 형식으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참으로 좋은 측면을 말해준다고 본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허나 이 “여민동락(與民同樂)”에서 “여민(與民)”이 가리키는 측면은 서민 즉 백성들과 함께 라는 의미이다. 이런 “여민”은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는 여러 층의 지배자들도 있고 황제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많게는 서면과 언어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생각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 즉 관습적인 것과 계급적인 것 등등이 모두가 이유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차원적인 면이다. 즉 천자(天子)와 천민(賤民)이라는 이 넓은 골을 마음대로 통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

과 보잘 것 없는 서민이 어찌 같이 “동락(同樂)”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여민(與民)”도 현실화 될 수 없었거니와 “동락(同樂)”은 더더욱 어렵다고 본다. 만일 “동락(同樂)”이 있었다면 그것은 짧은 시간적 혹은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동락(同樂)”은 가능하나 진정으로 그것도 진심으로 허심단아하게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제출할 때에는 많이는 이용하는 면이거나 혹은 정치적 또는 통치를 유지하는 면에서의 수법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

계급과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인간들의 사심(私心)과 의식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한, 이런 것은 참으로 힘들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의식면에서의 차이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면에서의 차이점, 그리고 살아온 환경과 지역적인 차이점 등들은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동락(同樂)”을 쉽게 얻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바로 많은 대화와 서로간의 이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본다.

(3) 墨子의 非樂論

묵자(墨子)⁷⁾는 작은 수공업가의 집에서 태어났고 소생산자들의 대표이다. 허나 그는 넓고 깊은 학술사상과 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모략(謀略),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후세까지 널리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가 제출한 “겸애(兼愛), 비명(非命)”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체계 학설로 유가(儒家)의 “인의(仁義), 예악(禮樂)”과 아름다움을 비꼴다.

묵자(墨子)의 음악미학사상은 그의 학설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대 동방역사의 음악보물고중의 빛나는 명주(明珠)이다.

7) 묵자는(기원전468~기원전376)의 사람으로 이름은 명적(名翟)이다. 그는 춘추말기 전국시기 송나라의 (현재 하남상구(河南商丘)) 사람이다. 그는 전국시기(戰國時期)의 저명한 사상가(思想家), 교육가(教育家), 과학가(科學家), 군사가(軍事家), 사회 활동가(社會活動家), 묵가학과(墨家學派)의 창시인(創始人)이다. 그의 묵가 학설은 후세에 널리 전해졌다.

이러한 묵자(墨子)는 “비악론(非樂論)”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음악을 극구 반대하였는데 심지어 한 차례의 출차 중에서는 조가(朝歌)의 방향 쪽으로 간다고 하여서 말머리를 돌려 간적이 있다. 그는 음악은 비록 아름답고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지만 그로 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부녀자들이 물레를 돌리지 않고, 대신들이 정무(政務)에 몰두하지 않는데 이는 위로는 성왕(聖王)이 일하는 원칙에 맞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이익(利益)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묵자(墨子)는 왜 “비악론(非樂論)”을 제출하였고, 또한 그 함의는 또한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담론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논증이 필요하다. 하여 그러한 과정을 줄이고 요약하면 그는 미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심미적인 일면과 예술 활동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점이라 생각되고, 아울러 음악을 하며 있어서의 정도 즉 “도(度)”를 참답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4) 荀子和 墨子の “非樂”

순자(荀子)의 《악론(樂論)》편은 전국(戰國)시기 음악을 계통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논의한 중요한 미학(美學)저서이다. 이러한 저서는 후세에 매우 넓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문예사상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악론(樂論)》에서는 묵자(墨子)의 “비악(非樂)”에 대해서 주요하게 비판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자신의 음악미학사상을 발전시켰다.

첫째로, 순자(荀子)는 음악의 존재하는 합리성을 긍정하였다. 그는 묵자(墨子)의 음악심미활동은 대중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까지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순자(荀子)는 인간들의 자연본성을 의거(依據)로 삼고, 주체심미를 강조하고, “성색(聲色)”에 대한 필연성과 보편성의 욕구를 밝혀냈으며, 묵자(墨子)

의 금욕주의(禁欲主義)관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눈은 고운 색을 좋아하고(若夫目好色), 귀는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며(耳好聲), 입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口好味), 마음은 재물을 좋아하고(心好利), 몸은 편안함과 안락을 좋아(骨體膚理好愉佚)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질에서 산생되는 것이다(是皆生于人之情性者也).” 이로부터 볼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절대로 “비악(非樂)”과 같은 음악심미활동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의(禮義)”에 위배(違背)되는 것과 “군이무분(群而无分)”하는 것과 “무도량(无度量)”과 연계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성색(聲色)에 대한 욕구(欲求)는 그 어떠한 측면에서의 도(度)가 없기에 쟁론할게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악심미는 정당한 것이고 그 문제에서의 관건(關鍵)은 “예(禮)”로 어떻게 규제하는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의 규범(規範)으로 제약하는가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아울러 “악(樂)”은 “도(道)”로 체현하게 하여 “명도(明道)”, “치인(治人)”의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음악이 사회에 위험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本性)을 개변시키고 논리(論理)과 도덕적(道德的) 의식을 증강시켜주고, 사회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그는 “비악(非樂)”의 결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천하를 어지럽게(天下亂)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순자(荀子)는 음악의 정감특성을 긍정하였다. 그는 음악의 산생은 인성의 필연적인 본성이고 정감과 욕망을 나타내는 수요이고, 사람들의 정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夫樂者，樂也，人情之所必不免也，故人不能无樂。樂則必發于聲音，形于動靜，而人之道，聲音動靜，性術之變盡是矣。……而墨子非之奈何！⁸⁾

8) 순자(荀子) 《악론(樂論)》.

이 글로부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1) 순자(荀子)는 음악은 문예심미활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간들에게 피면(避免)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심미정서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경과(經過)해야 할 형식이며 이러한 활동은 정당하고 유익(有益)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악(非樂)”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미정감과 부합되지 않고 인간들의 정서(情緒)와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더욱 불리하다고 하였다. (2) 순자(荀子)는 음악이 표현하는 내용도 인간들의 정감과 운동의 변화를 떠날 수 없고, 각종 정감을 통하여 표달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심원(心怨)”, “심상(心傷)”, “심장(心庄)”, “심음(心淫)”을 산생시키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순자(荀子)는 문예의 이정(怡情)작용을 긍정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악자(樂者), 악야(樂也)”라고 하고 이것과 군자의 “이금슬악심(以琴瑟樂心)”⁹⁾의 관점을 연계시켰는데 이는 음악오락은 이정(怡情)의 작용을 중시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방의 많은 성인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모두가 일정한 도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정확한 주장들이 보인다. 하여 몇 천 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이러한 토론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3. 文獻에서의 音樂

음악에 관한 문헌들은 참으로 많다. 그 중에서 고대 중국과 한반도의 문헌들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2000여 년 전 중국에는 이미 《악기(樂記)》와 《려씨춘추(呂氏春秋)》를 비롯한 문헌들이 있었고, 그러한 문헌들을 시대적으로 열거(列舉)해보면

9) 荀子《樂記篇》, “君子以鐘鼓道志, 以琴瑟樂心”. 고대 선비들은 자신의 수신양성(修身養性)을 하기 위해서 “금기서화(琴棋書畫)”를 중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금(琴)을 첫 자리에 놓았다. 때문에 금은 수양을 증명하는 것이고 정신적(精神的)인 의탁(依托)이었다. 그렇기에 고대문인들이 남긴 매우 많은 시사(詩詞)에는 이러한 글들이 매우 많다.

《사기(史記)》 중에는 《악서(樂書)》와 《율서(律書)》가 있고, 《한서(漢書)》에는 《악지(樂志)》와 《예문지(藝文志)》가 있고, 《宋書(宋書)》에는 《악지(樂志)》와 《율력지(律歷志)》가 있고, 《수서(隋書)》 중에는 《음악지(音樂志)》가 있고, 《율력지(律歷志)》와 《경적지(經籍志)》가 있고, 《구당서(舊唐書)》에는 《음악지(音樂志)》가 있고, 《신당서(新唐書)》에는 《예문지(藝文志)》가 있고, 《원사(元史)》 중에는 《예악지(藝樂志)》가 있다. 그리고 음악 전문(專門) 저서들로는 《칠국고(七國考)》 중에는 “음악(音樂)”문(門)이 있고, 《서한회요(西漢會要)》 중에는 “악(樂)”문(門)이 있고, 《삼국회요(三國會要)》 중에는 “악(樂)”문(門)이 있고, 《당회요(唐會要)》 중에는 “악(樂)”유(類)가 있고,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 중에는 “악(樂)”문이 있고, 광서(光緒) 《대청회전사례(大清會典事例)》 중에도 “악부(樂部)” 등의 저서(著書)가 있다. 이러한 것 저서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고대문헌들에서 모두 음악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한 음악을 매우 중시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반도의 많은 문헌들에서도 이러한 유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三國遺事)』 악지(樂志),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삼국유사(三國遺事)』 등과 같은 사서(史書)들에서도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조에 와서는 전문적인 음악저서가 발간되었다. 그것이 바로 『악학궤범(樂學軌範)』¹⁰⁾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에서 이러한 저서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서술(敍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여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대표적이고도 비교(比較)가치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려 한다. 즉 『악학궤범(樂學軌範)』 서문(序文)에서의 “악(樂)”을 논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과 매우 흡사한 중국의 고서(古書) 『禮記』 〈樂本〉을 비교해서 살펴보려 한다.

10) 조선조 시대 즉 1493(성종 24)년에 성현(成僉) 등이 임금의 명으로 편찬한 음악 이론저서이다. 백제(百濟) 가요 〈정음사〉와 고려 가요 〈동동〉 등이 한글로 적혀 있으며, 음악의 원리(原理), 악기 배열(排列), 무용 절차(節次), 악기 등이 그림으로 풀이되어 있다. 한국 음악사, 음악 이론 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사료이다. 모두 9권 3책으로 되어 있다.

1) 序에 대하여

그렇다면 서문이란 무엇인가? 서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序, 緒也°……“序”通“緒”, 自然也与“緒”同義. 序跋.¹¹⁾

서(序)는 또한 “서(叙)” 혹은 “인(引)”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현재는 “인언(引言)”, 또는 “전언(前言)”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들어가는 말”, “문제 제기”, “일러두는 말” 등과 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다. 이러한 “서(序)”에서는 많게는 책을 쓰는 설명(說明) 혹은 출판의지(出版意旨), 편차 체례(編次體例)와 작자의 정황(作者情況) 등과 같은 내용들을 쓰고 있다. 때로는 작가의 작품과 문제에 대한 연구의 발상과 같은 것도 기술한다. “서(序)”는 일반적으로 서적 혹은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쓰는 경우가 많다. 극히 드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책의 마지막에 쓰고 이를 “발(跋)” 혹은 “후서(後序)”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서(序)에 대하여 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형태가 있다. 즉 서(叙), 서문(叙文), 서언(叙言), 서언(序言), 서문(序文), 인(引), 인언(引言), 도언(導言), 도론(導論) 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序)는 자서(自序)와 타서(他序)로 나눈다. 自序(自序)는 저작의宗旨(宗旨), 편찬경과(撰寫經過), 편찬체례(編寫體例) 등을 설명하고 때로는 저서(著書) 중의 중점과 난점 등을 간추려 서술하기도 한다. 자서는 전언(前言)이라고도 한다. 타서(他序)는 작가, 작품에 대한 소개, 평론 혹은 저서(著書) 중의 관점에 대하여 앞에서 말해주거나 일러둔다. 그리고 자서와 타서를 병용(併用)해서 쓸 수 있고, 다른 관점에 대하여서는 전개를 진행할 수 있다.

11) 黃現璠, 《古書解讀初探—黃現璠學術論文選》(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4年7月), 第476頁.

많은 경우 독자들은 독서(讀書)를 하기 전에 먼저 저서의 서발(序跋)을 읽는다. 때문에 적지 않은 책에서는 도언(導言)이라고도 한다. 저서거나 타서를 막론하고 모두 독자(讀者)들로 하여금 저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서(序)》를 쓰는 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그 내용을 보면 저작종지(著作宗旨), 찬사경과(撰寫經過), 편사체례(編寫體例)를 한 것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아울러 저서의 난점(難點)과 중점도 요약하거나 해석해주는 작용도 한다. 이로부터 서는 모든 저서의 중심이고 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樂學軌範』 序

『악학궤범(樂學軌範)』은 조선반도의 매우 중요한 고대음악예술문헌이다. 그리고 이 역시 인류의 보귀(寶貴)한 음악예술유산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은 조선조초기(1932) 이후의 음악사상도 엿볼 수 있다. 아래에 『악학궤범(樂學軌範)』 서문의 원문(序原文)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樂也者出於天而寓於人發於虛而成於自然所以使人感而動盪血脈流通精神也
因所感之不同而聲亦不同其喜心感者礪以散怒心感者粗以厲哀心感者嘯以殺樂心
感者嘽以緩能合其聲之不同而一之者在君上導之如何耳所導有正邪之殊而俗之隆
替係焉此樂之道所以大關於治化者也……

이는 『악학궤범(樂學軌範)』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아래에서 이상과 같은 점들을 염두(念頭)에 두고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서(序)를 살펴보려고 한다.



樂也者出于天而寓于人發于虛而成于自然所以使人心感而動蕩血脉流通精神也。因所感之不同而聲亦不同其喜心感者礁以散怒心感者粗以厲哀心感者嘒以殺樂心感者嘒以緩能合其聲之不同而一之者在君上導之如何耳所導有正邪之殊而俗之隆替系焉此樂之道所以大關於治化者也……¹²⁾

이 부분의 내용들에서 악(樂)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표현될 때는 비록 자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또한 허(虛)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는 음(音)이 인간의 마음과 혈맥(血脉)을 윤통시키고 정신을 분발시키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기(引氣)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좋고 연창을 잘할 때에는 천상의 소리 혹은 하늘이 내린 소리라고도 한다. 이러한 말들은 누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는 역사적(歷史的)으로 전해져 온 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아래에 동방의 고서(古書)인 《례기(禮記)》·〈악본(樂本)〉에 실

12)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한어의 단락(段落) 나눔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樂也者，出于天而寓于人，發于虛而成于自然，所以，使人心感而動蕩血脉流通精神也。因所感之不同而聲亦不同，其喜心感者礁以散，怒心者感者粗以厲，哀心感者嘒以殺，樂心感者嘒以緩，能合其聲之不同而一之者，在君上導之如何耳，所導有正邪之殊，而俗之陵替系焉，此樂之道，所以，大關於治化者也。

린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樂者,音之所有生也;其本在人心之感于物也,是故其哀心感者,其聲噍以殺,其樂心感者,其聲啍以緩,其喜心感者,其聲發以散,其怒心感者,其聲粗以厲,其敬心感者,其聲直以廉;其愛心感者,其聲和以柔,六字非性也,感于物而后動

이 문장과 앞에 《악학궤범(樂學軌範)》의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매우 많은 유사(類似)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유사(類似)점들에서 중요한 것은 악(樂)이다. 이러한 악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내용들에서의 악(樂)은 그 악의 기본적인 것과 그로부터 유발(遺髮)되는 느낌들이고 그 악이 산생하는 원천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는 음악의 심오(深奧)한 의미와 그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같은 점들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악학궤범(樂學軌範)』 서문의 악은 단순한 음악본체적인 것도 아니고, 의념적인 면과 음악을 연구하는 면에서의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예기(禮記)》·〈악본(樂本)〉도 아래와 같은 어구가 있다. “악지칙무원(樂至則無怨), 레지칙불쟁(禮至則不爭)”이 있다. 이 문장의 악(樂)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많은 해석을 하였다. 즉 “풍류 악, 즐길 락, 좋아할 요(謠), 풍류, 음악, 연주(演奏)하다. 악기, 즐기다, 즐겁다. 낙, 즐거움, 즐겁게 하다. 풍년, 편안하다. 좋아하다. 바라다. 지(至)에 이르다. 새가 날아 내려 땅에 닿다. 오다. 도래(到來)함. 미치다. 이름, 도달하다. 통함. 두루 미침. 몹시. 매우. 지극히, 대단히. 잘. 궁극(窮極). 극한(極限). 극진히 하다. 힘을 다함. 깊다. 많다. 맞다. 중정(中正)을 얻음. 이루다. 성취(成就)함. 얻다. 진실(眞實). 지일(至日). 동지와 하지. 한 해 중 해가 가장 짧은 날과 긴 날. 적다. 기록(記錄)함” 등이 있다. 이러한 해석들을 보면

13) 『禮記』, 〈樂本〉

단순한 음악의 즐거움과 향락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극치적인 것, 풍년, 편안, 다함, 깊은 것, 통함, 두루 미침 과 같은 해석들이 있다. 이는 악에 대한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의미 그리고 고대인들이 이해가 너무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음악의 종류를 보면 뮤지컬, 클래식 국악, 종교음악, 오페라, 힙합, 랩, 록, 메탈, 가스펠, 동요, 재즈, 인디음악, 가요, 민중가요, 팝, 뉴에이지, 요 등이 있다. 이러하게 많은 외에 또한 각기 부동한 악기들의 음악도 있다. 그리고 음악출판물과 음향 등도 작사, 작곡 등도 있다. 아울러 학문적인 것과 형식적인 점들을 간추려 보면 음악사학(音樂史學), 극음악(劇音樂), 경음악(輕音樂), 현대 음악(現代音樂), 우연성 음악(偶然性音樂)등과 같다.

이러한 많은 명칭(名稱)과 그 형태 학문적인 것들을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기에 여기서 줄이려고 한다.

4. 音樂의 功能

음악의 공능은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즐기는 것이고 어렵게 풀이하며 천지인(天地人)의 모든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아래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간추려서 몇 가지로 종합해 이야기 하려 한다.

1) 音樂과 符號

음악은 일종의 부호이고, 성음(聲音)의 부호이며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을 표달(表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사상의 체제(載體) 중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음악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함축된 내용들도 있으며 작가의 생활체험과 사상정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음악은 물리적인 방면에서 분석할 때 그것은 소리와 진파가 변하면서 생기는 순음시간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고, 효과적(效果的)인 면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미적인 향수를 주고 사람들의 정감을 표달(表達)한다. 즉 음악은 사회에 대하여 심미공능과 인식 및 교육적인 공능과 오락적인 공능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실례들이 있다.

2) 音樂과 感情

음악은 정감을 서발(抒發)하고 정감을 기탁(寄託)하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은 생동(生動)활발한 감성형식으로 고상한 심미이상(審美理想), 심미관념(審美觀念) 및 심미정취(審美情趣)를 표현한다. 아울러 음악은 사람들에게 미적인 향수를 주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심미(審美)능력을 제고해주고, 사람들의 영혼(靈魂)을 정화(淨化)해주고, 정조(情操)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심미정취(審美情趣) 높여주며, 숭고(崇高)한 이상(理想)을 수립(樹立)시켜준다. 하여 많은 성인들과 예술가들은 이러한 음악으로 시대와 시대를 초월한 공간까지 그리고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이 역시 음악의 힘이고 청각예술의 남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들도 매우 많다. 하여 여기서 더 피력하지 않으려 한다.

3) 音樂과 社會

音樂은 사회행위의 일종형식으로 사회생활을 반영하고,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음악을 통하여 사람들은 상호 정감(情感)을 교류하고, 생활 체험을 한다. 이러한 점들은 가요와 가곡에서 제일로 많이 나타나고 제일 돋보이는 점이다. 음악의 본질은 진·선·미(眞, 善, 美)라고 할 수 있고, 매 한수의 아름다운 악곡들은 모두가 작곡자(作曲者)와 작사자(作詞

者)들의 생활에서의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의 내심세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아름다운 표상(表象)은 사람들의 학습, 생활, 사업, 휴식에 반영된다. 그리고 잡음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안, 초조와 조급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잡음들이 때로는 음악 속에 널리 사용되고 필요시에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음악들을 장시간 감상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다른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름다운 음악은 사람들의 심정을 평온하게 하거나 힘을 주고 앞으로 나가게 한다. 이러한 예들은 각 나라와 각 지역, 그리고 각 민족들 속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때로는 선동적인 작용도 하고 있고 일부 집단과 개인들의 일정한 목적(目的)에 이용(利用)되기도 한다.

때문에 어떠한 음악을 선택(選擇)하고 어떠한 음악을 감상(鑑賞)하는가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음악에 대한 정확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

結論:

음악은 참으로 단순(單純)하고 간단(簡單)하면서도 심오(深奧)한 함의(含意)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계속하여 창작하고 연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도 참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음악은 인간이 만들어 낸 청각예술이다. 이 청각예술은 사람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같이 오랜 세월을 달려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달려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정답은 역시 지속적인 탐구(探求)에서만 이루어질 것이고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둘째로, 음악의 본체적인 점에서의 연구는 그러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점과 심미적인 것이기에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포괄적인 면에서 탐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서 그렇고, 그러한 것과 그들의 문화가 어떠한 연결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계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기도 생각된다.

셋째로, 심미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도 탐구(探求)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그러한 음악을 대하는 사람들 입장과 입각점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目標)와 목적(目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꼭 서로 다른 종착점과 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음악을 연구하면서 음악의 서로 다른 음계, 절주, 선율 및 화성도 착실하게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정취(生活情趣), 심미정취(審美情趣), 언어(言語), 행위(行爲), 인제관계(人際關係)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參考文獻

『禮記』,〈樂本〉

陳四海,《中國古代音樂思想》西安: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高天康,『音乐知识词典』兰州:甘肃人民出版社, 1981年.

黃現璠,《古書解讀初探－黃現璠學術論文選》桂林:广西師範大學出版, 2004

明 宪,『知名唱,看盘所里』南原:韓國國立民俗國樂院, 2005.

全仁平,『國乐欣赏』首尔:中央大學校出版社, 1995年第三版.

王耀华·乔建中,『音乐學概论』北京:高等教育出版社, 2006年第2次印刷.

张师勋,『國乐概论』首尔:首尔大學出版社, 1975年.

張翼善,《朝鮮民族民俗音樂》延吉:延邊大學出版社, 2012.

張翼善,《延邊民謠音樂傳承/洋相的研究》首爾:民俗院, 2010.

張翼善,〈中國朝鮮族音乐长短的种类和文化的研究〉,《韓國传统音乐学》,首尔:韓國传统音乐學會, 2003年.

中文摘要

張翼善

对于音乐是众人熟知的,再有它的表层谁也都能谈的出.但它所包含的深层和它的审美深知的并不多.人们从小接触音乐,生活在音乐中并伴随着成长,再扩大地讲一生伴随着音乐,但懂得音乐所包含含义的人并不多见.因此从古到近许多皇帝和圣人们都重视“与民同乐”,并多于此“道理”许多人都知道,但在实际中很难实现.甚至多于如此简单而容易的事情,许多人苦闷,深思,研究,探索,到今还是没有找到圆满的答案.

本文通过前人们对于音乐的阐述和意义以及他们的定义等来重温.也就是从音乐家的音乐本體为切入点—音乐的构造,地域性,民族性等侧面进行分析.并且从圣人们的哲学观和美学观等,了解和懂得它的奥妙之处等.总之从多种侧面探究音乐的本性和意义等.

关键词: 音乐 本體 音乐观 文献 功能

논문 접수일 2012. 11. 02.

논문 심사일 2012. 11. 23.

게재 확정일 2012. 12. 10.